

동유럽국가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한 대응과 방역체계 :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폴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이 하 안 (한국외국어대학교)
(bulgariyann@gmail.com)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유럽 국가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에 대한 대응과 방역체계 살펴보고 어떻게 서유럽보다 동유럽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럽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되면서 서유럽을 시작으로 확진 사례와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동유럽국가들은 서유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이후 서유럽으로의 의료인력이 유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동유럽국가들은 감염이 확산을 통제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 결과 서유럽 대비 적은 피해를 기록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방역체계 수립으로 동유럽 내 전체 피해 규모를 줄인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폴란드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분석하였다. 동유럽 국가들은 열악한 의료환경과 불충분한 의료진에 대한 현실 자각으로 의료시스템 붕괴를 우려하였기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국가차원에서의 신속하고 강력한 수준의 국경봉쇄,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회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인한 국가통제에 협조하는 국민성 등이 팬데믹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제어 : 동유럽코로나, 동유럽코로나바이러스, 동유럽팬데믹, 사회주의팬데믹, 동유럽전염병

I. 서론

2019년 12월 말부터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전 세계가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 놓였다. 2020년에 들어서 유럽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되면서 서유럽을 시작으로 확진 사례와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처음 전문가들은 동유럽의 피해를 우려했다. 동유럽국가들은 서유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이후 서유럽으로의 의료인력이 유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동유럽국가들은 감염이 확산을 통제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 결과 서유럽 대비 적은 피해를 기록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방역체계 수립으로 동유럽 내 전체 피해 규모를 줄인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폴란드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유럽과 유럽연합의 코로나19 피해 현황

이번 장에서는 동유럽국가들의 코로나19 현황과 대응체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유럽 전체지역의 피해 상황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2020년 7월, WHO의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 규모 면에서 유럽이 미국 다음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WHO 지역구분에 따른 코로나19 상황

(기준: 2020년 7월 14일,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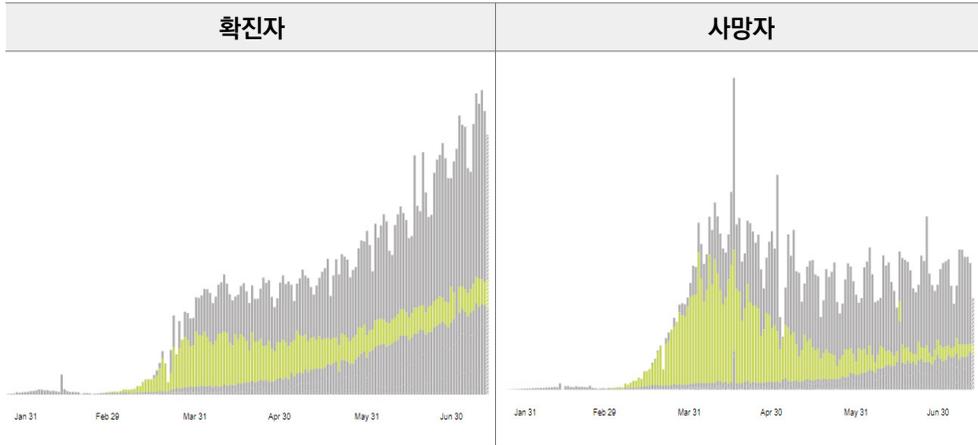
대륙	확진자	사망자
미국	6,780,428	288,430
유럽	2,946,104	203,957
동 지중해 지역 ¹⁾	1,302,297	31,751
동남아시아	1,196,651	29,900
아프리카	492,660	8,430
서 태평양 ²⁾	245,928	7,807
합계	12,964,068	570,275

출처: WH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Dashboard, 저자 재구성.

- 1) 아프가니스탄, 바레인, 지부티, 이집트,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아랍 자마 히 리야, 모로코,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랍 공화국, 튀니지, 아랍 에미리트 에미레이트 항공, 예멘.
- 2) 호주, 브루나이 다루 살람,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캄보디아, 중국, 쿡 제도, 피지, 키리바시,

〈그림 1〉 기간별(2020년 1월~6월) 유럽지역 피해 추이

(기준: 2020년 7월 14일, 단위: 명)



출처: WH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Dashboard, 저자 재구성.

2020년 3월, 중국에서 코로나19의 발병지인 후베이성에서 바이러스가 집중적으로 퍼지고 있을 때, 중국 다음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발생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유럽이 코로나19의 세계 중심지가 됐다고 발표하며 유럽의 심각성을 공포하기도 하였다. 위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유럽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약 50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럽대륙 내에서 이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진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은 회원국 간 협력 증대를 통해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며 새로운 지역 통합을 추진하였다. 유럽연합 시민들의 유럽연합 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특히, 쉥겐 조약(Schengen Area)을 체결한 국가들끼리는 별도의 출입국심사나 검문 없이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하다(이옥연 2011). 아시아 국가에서는 지역을 봉쇄시키거나 국경을 폐쇄할 수 있었으나 유럽에서 이와 같은 대처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코로나19가 유럽에 상륙했을 때 유럽연합은 스스로를 하나의 개체로 보고 공동대응을 해야 했으나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각국은 초기 방역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대륙에서 급속도로 코로나19가 전파되었다.

라오스 인민 민주 공화국, 말레이시아, 마셜 군도, 미크로네시아, 몽골리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제도, 대한민국, 사모아, 솔로몬 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베트남.

〈표 2〉 유럽 국가별 코로나19 피해 상황³⁾

(기준: 2020년 7월 14일, 단위: 명)

순위	국가	확진자	사망자
1	영국	290,133	44,830
2	스페인	255,953	28,406
3	이탈리아	243,230	34,967
4	독일	198,963	9,064
5	프랑스	172,377	30,029
6	스웨덴	75,826	5,536
7	벨기에	62,781	9,787
8	네덜란드	51,038	6,128
9	포르투갈	46,818	1,662
10	폴란드	38,190	1,576
11	루마니아	32,948	1,901
12	아일랜드	25,638	1,746
13	오스트리아	18,859	708
14	체코	13,238	353
15	덴마크	13,037	610
16	노르웨이	8,981	253
17	불가리아	7,411	276
18	핀란드	7,295	329
19	룩셈부르크	4,956	111
20	헝가리	4,247	595
21	그리스	3,826	193
22	크로아티아	3,775	119
23	에스토니아	2,014	69
24	슬로바키아	1,902	28
25	아이슬란드	1,900	10
26	리투아니아	1,874	79
27	슬로베니아	1,849	111
28	라트비아	1,174	31

3)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출처: <https://www.ecdc.europa.eu/en/cases-2019-ncov-eueea> (검색일: 2020. 07. 01.).

순위	국가	확진자	사망자
29	사이프러스	1,022	19
30	몰타	674	9
31	리히텐슈타인	85	1
	합계	1,592,014	179,536

출처: ECDC(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자료 필자 재구성.

유럽연합의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는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각국에서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역학적 업데이트와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ECDC에서 발표한 유럽의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보면 2020년 7월 14일 기준, 150만 명의 확진자와 17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가 정점을 달했던 초반 각국은 상점폐쇄, 불필요한 이동제한 조치 등 봉쇄령을 내렸으나 최근 소강상태를 보이며 봉쇄조치를 완화해 나가는 추세다. 유럽연합은 7월1일부터 대한민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한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차 팬데믹의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표 3〉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가 구분⁴⁾

서유럽	동유럽	남유럽	북유럽
영국	폴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체코	그리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헝가리	몰타	스웨덴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출처: UNITED NATIONS GEOScheme FOR EUROPE.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럽의 각국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유럽연합으로부터 신속한 지원을 받지 못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생각하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며 탈 EU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 UN Statistics Division, 출처: <https://unstats.un.org/unsd/methodology/m49/> (검색일: 2020. 07.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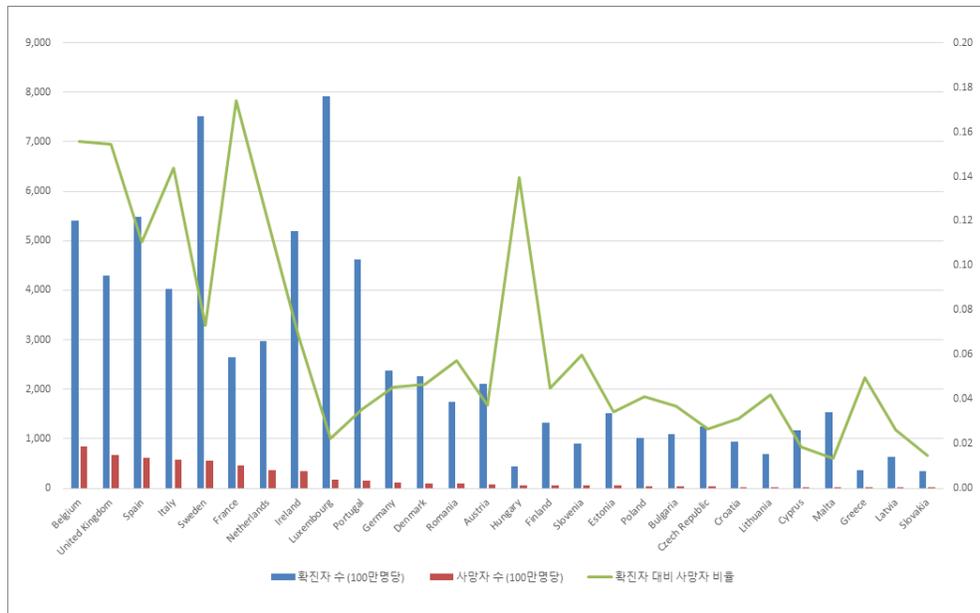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국가 중 가장 큰 피해를 본 상위 10개 국가는 서유럽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아래 〈표 3〉에서는 〈표 2〉의 유럽국가 중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선별하고 지역별로 구분하여 지역별 피해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구축한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 인 데이터(Our World in Data)⁵⁾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첫 시점부터 7월 15일까지의 전체 누적 자료를 기준으로 〈그림 2〉에 국가별 누적 피해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벨기에의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 사망자는 844.46명으로 유럽연합 회원국가들 중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그림 2〉에 녹색 실선으로 나타낸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살펴보면, 벨기에,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헝가리 등의 나라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확진자와 사망자의 비율이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룩셈부르크로, 10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스웨덴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매우 적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헝가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100만 명당 확진자 수에 비하여 많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유럽지역 국가별 누적 피해⁶⁾

(기준: 2020년 7월 15일)



출처: Our World in Data, Coronavirus Pandemic (COVID-19) - the data, 저자 재구성.

5) Our World in Data. 출처: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data> (검색일: 2020. 07. 01.).

6) Ibid.

이러한 피해 상황의 경향성을 유럽의 지역에 따라 분석하기 위하여 위의 <표 3>에 따라 국가들을 지역별로 묶어서 다음의 <표 4>와 같이 자료를 재구성했다.

<표 4> 유럽지역별 코로나19 피해 상황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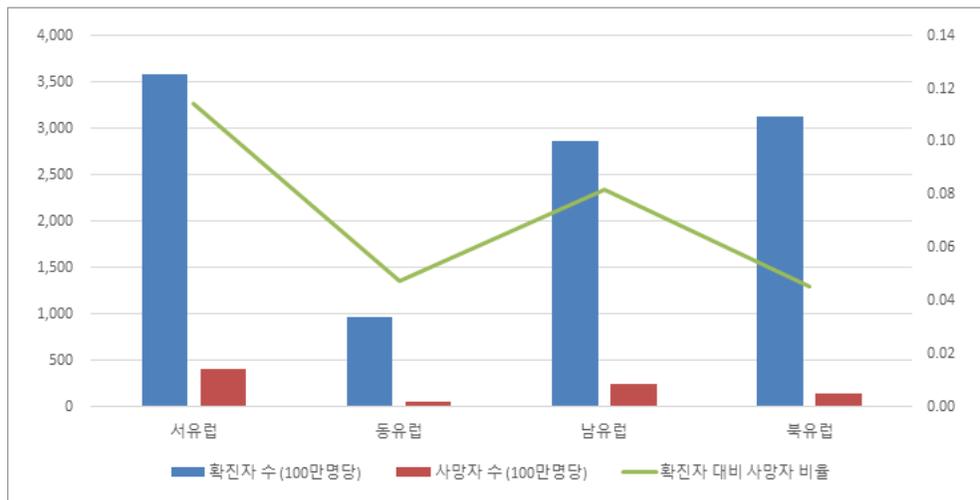
	확진자 수 (100만 명당)	사망자 수 (100만 명당)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	병상 수 (1000명당)	기대 수명
서유럽	3575.77	409.31	0.11	5.12	81.87
동유럽	965.64	45.69	0.05	6.31	77.93
남유럽	2865.59	235.07	0.08	3.61	82.48
북유럽	3121.08	141.22	0.05	4.19	79.69

출처: Our World in Data, Coronavirus Pandemic (COVID-19) - the data, 저자 재구성.

이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동유럽국가들에서 적은 수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확진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도 북유럽국가들 수준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유럽지역별 누적 피해⁸⁾

(기준: 2020년 7월 15일)



출처: Our World in Data, Coronavirus Pandemic (COVID-19) - the data, 저자 재구성.

7)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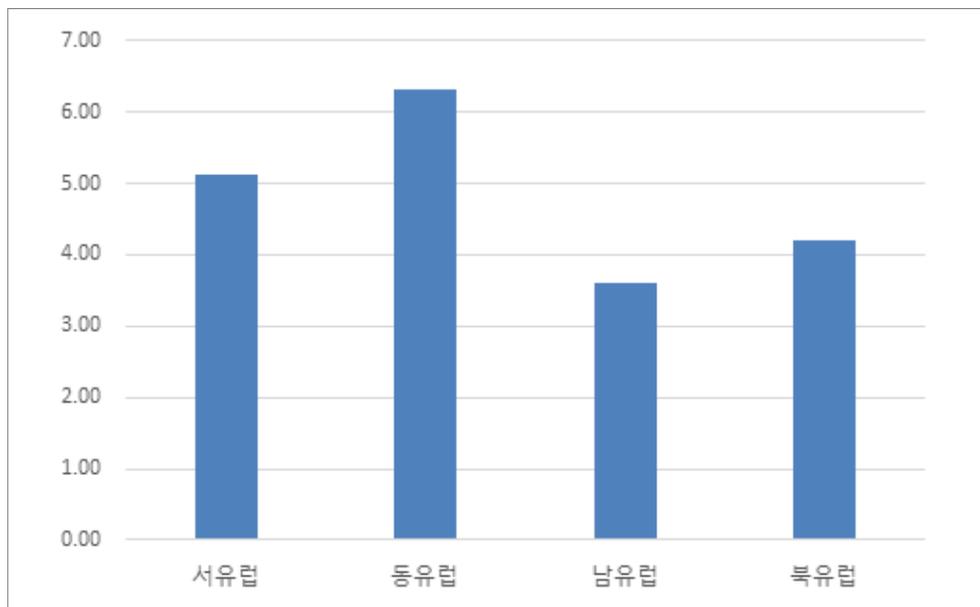
8) Ibid.

이처럼 동유럽국가들에서 나온 긍정적인 지표들과 관련하여 기대 수명과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를 살펴보았는데, 기대 수명의 경우 동유럽국가들에서 평균 77.93세를 나타낸 반면, 오히려 가장 많은 사망자와 높은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나타낸 서유럽국가의 경우 81.87세로 남유럽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을 확인했다. 다만 병상 수의 경우 동유럽국가 가 1,000명당 6.31개로 다른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병상이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유럽보다 동유럽에서 인구대비 더 많은 수의 병상이 확보된 것은 사회주의 시절의 체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의료를 책임진다.’라는 사회주의 시절 정부방침에 따른 병원시설 확보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Iwona Borkowska 2018). 서유럽과 비교했을 때 의료 시설의 수준이 낮고 의료장비 또한 노후화되었지만, 의료 시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 확진자의 병상이 모자라 학교와 창고 등을 개조해서 환자를 받았던 서유럽과 남유럽과 비교되는 점이다. 아래 <그림 4>에서 보면 인구 천 명당 병상 수가 동유럽이 가장 많고 그 뒤로 서유럽, 북유럽, 남유럽 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유럽의 지역별 인구 1000명당 병상 수⁹⁾

(기준: 2020년 7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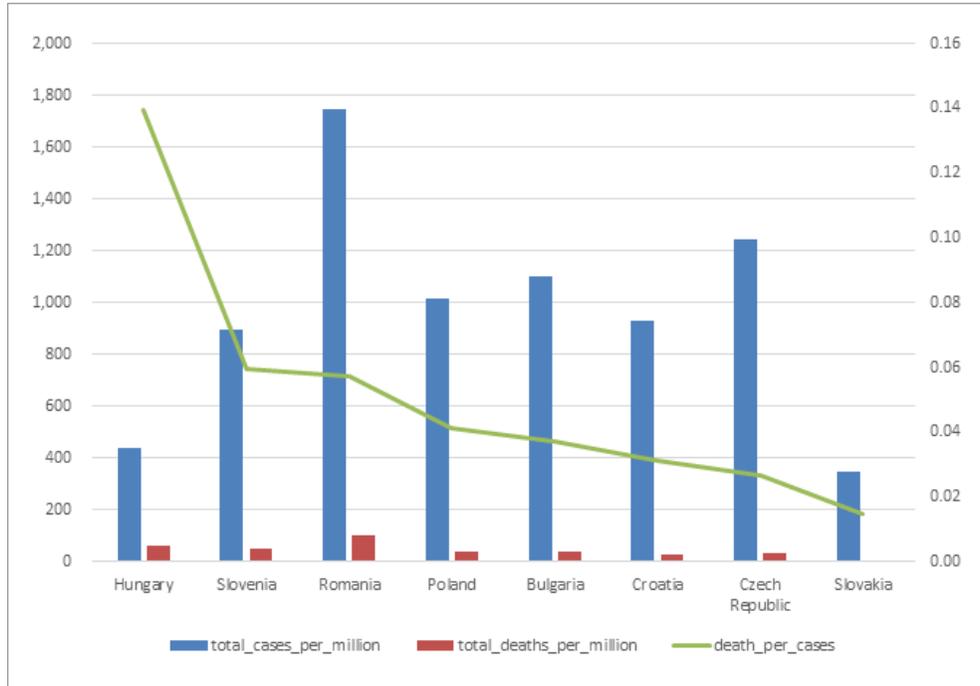
출처: Our World in Data, Coronavirus Pandemic (COVID-19) - the data, 저자 재구성.

9) Ibid.

각각의 동유럽국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루마니아에서 가장 많은 수의 100만 명당 확진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확진자 대비 사망자의 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리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헝가리의 경우 슬로바키아와 유사한 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림 5〉 동유럽국가들의 누적 피해¹⁰⁾

(기준: 2020년 7월 15일)



출처: Our World in Data, Coronavirus Pandemic (COVID-19) - the data, 저자 재구성.

또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곳은 헝가리이고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가 뒤를 이으며 가장 적은 곳은 슬로바키아로 나타난다.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국가별로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대처방안을 실시하였고 방역체계를 실시한 지 2~3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 결과가 나오고 있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방역체계 수립으로 동유럽 내 전체 피해 규모를 줄인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폴란드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다음 장에서 알아보려고 한다.

10) Ibid.

Ⅲ. 동유럽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방식 분석

1. 슬로바키아

동유럽 국가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체제와 방식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슬로바키아는 동유럽국가 중에서도 또 유럽연합 전체에서도 인구 100만 명 대비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낮은 국가이다. 슬로바키아는 7월 14일 기준 1,927명의 확진자와 2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슬로바키아의 이웃 국가인 오스트리아 또한 성공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였지만, 확진자 수는 19,154명으로 10배 많고 사망자 수는 710명으로 약 7.5배 더 많은 수준이다. 오스트리아의 인구가 슬로바키아보다 약 300명이 많은 것을 참작하고 봤을 때도 오스트리아가 슬로바키아보다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온라인 기반 연구 플랫폼 Future Learn에서 최근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는 동유럽 도시 중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¹¹⁾ 슬로바키아는 강력한 국가 보건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신종 전염병을 다룰 수 있는 특별한 기술력을 갖춘 나라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을까? 슬로바키아는 동유럽에서 가장 먼저 초기 방역을 공격적으로 조치한 국가이다. 유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상륙하기 전인 2월 중순부터 공항과 국경 검문소에서 발열 체크를 실시하며 국경을 강력하게 통제하였다. 3월 6일 첫 감염자가 나온 이틀 뒤에 수도인 브라티슬라바 전 지역의 학교를 폐쇄하였고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을 철저하게 실시하였다. 전 국민적 마스크 착용은 감염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슬로바키아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였다. 3월 13일 슬로바키아의 신임 총리인 이고르 마토비치와 보건장관인 마렉 크라찌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는데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즐라티카 푸스카로바는 이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다.¹²⁾ 이렇듯 정치인들이 대중과 매체 앞에서 마스크를 쓰며 국민들로 하여금 마스크 착용을 익숙하게 하였다. 주자나 차푸토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유명인들이 솔선수범하여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민들에게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코로나19가 국가에 퍼지기 전에 이미 국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개인의 위생을 철저하게

11) Futrue Learn, 상위 50위 안에 든 동유럽 도시는 26위 브라티슬라바, 49위 부다페스트.
출처: <https://www.futurelearn.com/info/2020-best-cities-for-jobs-index> (검색일: 2020. 07. 01.).

12) Dennikn 신문, 출처: <https://dennikn.sk/minuta/1800045/> (검색일: 2020. 07. 01.).

관리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슬로바키아의 소비활동을 분석한 결과 개인의 위생과 건강보조식품의 소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방침에 의해 모든 건물과 상점 입구에 일회용 장갑과 손소독제가 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이상의 소비자가 개인용 방역 용품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슬로바키아인들의 국민성을 엿볼 수 있다.¹³⁾

또 국내에 거주하는 집시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최초의 국가이다. 6천명이 거주하고 있는 판자촌 다섯 곳에서 4월 초부터 시행한 검사를 통해 32명의 집시 민족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임시 거주지와 같은 판자촌에서 생활하며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집시 민족이 바이러스를 옮기면 모든 인구가 위험에 처할 것을 우려하여 판자촌을 봉쇄하였다.¹⁴⁾ 이러한 강력한 조치들로 인해 동유럽에서 처음으로 두 달만에 확진자 0명을 기록하였다.

슬로바키아에서 신속하고도 강력한 코로나19 대응책을 세웠던 것은 국가 스스로가 타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시스템을 자각하고 주요 발병을 억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또 공산주의 체제를 겪은 시민들의 정부 통제에 잘 따라준 것도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요인이다.

2. 불가리아

불가리아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국가 차원에서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고 강력하고 직접적이며 세밀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3월 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인 소피아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불가리아의 총리 보이코 보리소프는 연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가리아의 열악한 의료체계와 의료진의 부족에 대한 현실을 자각하고 국가의 통제에 잘 따르고 개인위생과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4월 13일 종료로 예정되었던 국가비상사태는 5월 13일까지로 한 달 연장한다.

3월 21일, 불가리아 보건부는 발표문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됨을 밝혔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3) The Slovak Spectator 신문. 출처: <https://spectator.sme.sk/c/22429453/number-of-covid-19-cases-goes-up-as-slovakia-opens-up-further-news-digest.html> (검색일: 2020. 07. 01.).

14) TVNOVINY 신문. 출처: https://www.tvnoviny.sk/koronavirus/1993653_od-piatku-sa-zacina-testovanie-romov-v-osadach (검색일: 2020. 07. 01.).

〈표 5〉 불가리아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헬스장, 운동시설, 놀이터 방문 금지 • 60세 미만,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상점 및 약국 방문 금지 • 2.5M이상 거리두기 • 수용 가능인원의 50% 허용 • 30명 초과 모임 금지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록, 근로 증명서, 신분증등을 지참한 건강상 문제, 타지역으로의 출퇴근, 거주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민만 도시간 이동 가능 • 도시의 각 지역마다 검문소를 설치하여 국민들의 여행 목적을 확인하고 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동 불허 • 유럽연합 회원국과 제3국 국민의 불가리아 국경 통과와 입국 금지
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에 대한 행정명령 시행 • 공원, 거리, 대중교통, 쇼핑몰 등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 입과 코를 가릴수 있는 스카프, 수건 휴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근무 강력 권고 • 마트, 약국을 제외한 모든 가게 휴업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의료용장갑, 방호복 등에 대한 수출 금지 • 손소독제, 해열제 등 보건부장관 사전 허가 의무화 및 수출 금지
자가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입국자의 14일 의무자가격리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조치 1회 위반시 벌금 3백~1천레바 (한화 21만원~70만원) • 2회 이상 위반시 벌금 1천~2천레바 (한화 70만원~140만원) • 의무격리 위반 위반시 벌금 5천레바 (한화 350만원)

출처: 불가리아 코로나19 상황 본부¹⁵⁾ 자료를 필자가 재구성.

불가리아의 경우 국민 생활의 모든 분야에 세세한 제한을 두었으며 거리에서는 경찰이 직접 이를 감시하였다. 또 동유럽국가 중 마스크 착용을 가장 강조한 국가이다. 중국에서 마스크를 수입하고 불가리아 내 6개 공장에서 자체 생산을 시작하여 하루 3만 개의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6월 23일부터 실내 공공장소와 행사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15) 불가리아 코로나19 상황 본부. 출처: <https://www.mfa.bg/bg/situationcenter/listing> (검색일: 2020. 07. 01.).

시행하였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레바 (한화 21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5월 13일부터 국가비상사태 대체 수정법안으로 '전염병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기간 동안 규정된 제한 기간 없이 방역 조치를 명령하였다. 애초 6월 30일까지 연장 하였으나 현재는 7월 15일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국가운영본부를 설립하고 환자가 치료받는 병원을 지정하고 자국민의 질병 치료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또 국민 스스로 새로운 질병으로 인한 생활에 익숙해져 달라고 당부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불가리아 국민들은 코로나 관련한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고 있다. 올해 기준 불가리아 국민의 월 평균 임금은 1,308레바 (한화 91만원)로 국가의 방역 조치 1회 위반이나 공공장소 마스크 미 착용시 월급의 1/4수준을 벌금으로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¹⁶⁾ 또 사회주의 시절 문화의 잔재로 시민들이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것을 익숙하게 생각한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개인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는 서유럽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림 6〉 슈퍼마켓 앞 1m 간격으로 줄 선 불가리아 시민들



출처: Monitor, 불가리아 신문사.¹⁷⁾

16) 불가리아 통계청. 출처: <https://www.nsi.bg/bg/content/3928/%D0%BD%D0%B0%D1%86%D0%B8%D0%BE%D0%BD%D0%B0%D0%BB%D0%BD%D0%BE-%D0%BD%D0%B8%D0%B2%D0%BE> (검색일: 2020. 07. 01.).

17) Monitor. 출처: <https://www.monitor.bg/bg/a/view/koronavirusyt-izprazni-raftovete-na-supermarketite-v-milano-i-lombardija-189606> (검색일: 2020. 07. 01.).

전국 휴업령으로 내수 시장이 마비되었으며 국경통제로 인한 수출 및 수입 난으로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었다. 불가리아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법인세 연장, 소득지원, 채무보증 확대 등 다방면으로 경기 부양책을 기획했다. 또 EU 집행위가 5월 27일 발표한 7,5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인 'Next Generation EU'에 따라 약 290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하였다.¹⁸⁾ 위 경기부양책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회원국들에 보조금(grants)과 대출(loans)이 혼재된 양상으로 지원된다.¹⁹⁾

3. 폴란드

폴란드는 동유럽국가 중 성공적인 초기 대응을 시행한 국가로 평가된다. 정부 주도의 신속한 대응으로 코로나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각 주차원의 방역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시행하였다.

폴란드 하원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유럽에 코로나19가 상륙하기 시작한 시기인 2월 말부터 폴란드의 총리는 각 지역 지방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최고단계의 준비태세를 갖추 것을 지시하였다. 3월 초부터 폴란드 전역에 진단센터 11개소를 24시간 운영을 시작하며 감염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79개의 병동과 2900개의 입원실을 확보하였다. 3월 8일에는 코로나 특별법인 'Specustawa'가 발효되었다. 이는 폴란드 하원에서 418표 중 400표를 얻으며 상정되었다. 이는 예산지정, 명령, 역학적 조치 시행 등 통해 폴란드 내 코로나19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다.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²⁰⁾

- ✓ 바이러스 직접 전염지역과 간접 버퍼 지역 등 위험지역 설정
- ✓ 전염지역에 대한 시민 이동 통제
- ✓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보이는 감염자 또는 감염의심자에 대해 강제 격리시설 입원 조치, 감염자와 접촉자에 대해 최대 21간 자가 격리 조치 가능
- ✓ 모든 지방 공공기관 통제권은 지역 내 주지사에 부여함
- ✓ 모든 기업과 개인에게 강제 동원을 포함한 의무 이행 사항 명령

18) 출처: <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45109/210720-euco-final-conclusions-en.pdf> (검색일: 2020. 07. 21.).

19) 출처: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PEECH_20 (검색일: 2020. 07. 01.).

20) Specustawa Covid-19, Przewodnik. 출처: <https://investinpomerania.pl/aktualnosci/law-on-covid19-in-poland-handbook-by-baker-mckenzie-experts-2/> (검색일: 2020. 07. 01.).

- ✓ 총리의 발동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명령 시행
-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개보수, 건축, 설계 등은 폴란드의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 유치원이나 학교의 폐쇄 시 해당 아동에 대해 최대 14일의 양육지원금 지급
- ✓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근로자는 고용주에 지시에 따라 원격 근로 가능
- ✓ 식품과 의약품 가격에 대해 최고가를 설정하고 공지하여 시장 가격 통제
- ✓ 1인당 의약품 및 생필품에 대해 가능 구매량 제한 가능

이와 같은 특별법 내용은 유럽의 그 어느 대응법보다 강력하다. 이로 인해 국민 이동에 강력한 통제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또 근로자와 학생에 대한 방침을 내림으로써 사회적인 혼란을 막았다. 3월 9일부터는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체코, 독일,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와의 국경 통과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입국 카드를 작성하게 하고 발열 체크를 시행하였다. 감염 증상을 보이면 바로 전문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3월 12일부, 폴란드 총리 모라비에츠키는 전국 전염병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다. 2주간 전국의 교육기관에 휴교 명령을 내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극장, 영화관 등 문화 활동 시설에 대해 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 3월 14일부터 2주간 슈퍼마켓, 식료품점, 약국, 세탁소를 제외한 대형 쇼핑센터를 폐쇄하였다. 포장 음식이나 배달음식은 가능하지만, 식당 및 주점에서 식사는 금지했다. 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는 종교행사를 금지한다. 또 전국의 19개 종합병원을 코로나19 전문 대응 병원으로 변경하여 감염된 환자들을 빠르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폴란드는 동유럽 최초로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의무화했다. 또 자가격리자 감시를 위해 경찰을 동원한다. 폴란드 국민은 개인의 사생활보다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을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ProteGo Safe란 이름의 이 어플리케이션은 특정 지리적 위치에서 코로나19 감염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의 연락처를 등록할 수도 있다.²¹⁾

이와 같은 조치와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참여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전염병 사태를 선포하고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발표한다. 전국 모든 교육기관의 휴교를 연장하고 약국, 슈퍼마켓 등 필수 상점에 대해 동시 입장 가능한 고객 수를 50명으로 제한하며 1m를 띄운 줄을 유지하게 하였다.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국민의 경우 30,000즈워티, 우리 돈으로 약 9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게 하였다. 이는 기존 5,000즈워티 (약 150만원)에서 6배 많은 수준이다.

21) Bankier 신문. 출처: <https://www.gov.pl/web/tarczaantykrzysowa> (검색일: 2020. 07. 01.).

또 3월부터 외국인의 폴란드 입국을 불허하고 모든 항공의 비행편을 중단시킨다. 외국인 입국 금지와 항공 노선 중단은 별도 해제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6월 13일부터 유럽연합의 생계 국가의 시민들에 대해 국경통제 해제 조치를 내렸다. 유럽연합 시민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도 해제한 상태다.

폴란드는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또한 유연하고도 신속하게 편성되었다. 식당, 주점, 쇼핑센터 등의 영업 정지와 국경봉쇄 등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폴란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정부는 경제 위기 대응책(Tacza Antykryzysowa)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총 3,120억 즈워티(약 95조원)의 규모이며 폴란드 GDP의 10%에 상응한다. 이 지원책은 <표 6>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다섯 개 항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 6> 폴란드 경제 위기대응책

번호	항목	내용
1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달 동안의 매출이 15% 하락하고 이 중 최소 한 달 동안 재정손실을 보인 기업 또는 전달의 매출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25% 하락해 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근무시간을 80%까지 제한 할 수 있으며(단, 이 경우 근로자의 임금은 법정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음.), 정부가 직원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2019년 산업 평균임금의 40% 한도 금액)을 지원 • 재정적 손실이 큰 기업의 경우 근무시간과 급여를 50%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단, 이 경우 근로자의 임금은 법정최저임금 보다 낮을 수 없음.), 정부가 직원 급여의 약 1/2에 해당하는 보조금(현 실업지원금의 130% 금액 한도선)을 지원 • 사회보험기관(ZUS)은 비정규직(시간당 아르바이트 종사자, 계약직 등) 및 자영업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약 2000즈워티(약 60만 원) 상당의 지원금 지원(단,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채용된 비정규직 종사자 및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사업체를 등록한 자영업체에만 해당) • 개인 및 기업의 은행 대출금 납부 유예(Credit Holidays) 제도 실시(납부유예 신청서 제출 시 관련 요금 및 수수료 납부 제외)
2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유동성 보증기금(Fundusz Gwarancji Płynnościowych)에서 폴란드 현지 대기업을 위하여 85억 즈워티(약 2조4000억 원) 지원해 시중 은행에서 제공한 대출에 대해 최대 80%까지 정부 보증 • 국가 산업은행(Bank Gospodarstwa Krajowego)과 협력하는 시중은행 20개사에서 중소기업들에 최대 80%까지 대출 지원(현 최대 60%) • 현재 국경통제 등으로 많은 운송 업체들이 자금회전 능력을 상실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 이러한 운송 업체들을 위해 약 17억 즈워티(약 4900억 원) 지원 • 기업들의 사회보험금 납부 관련, 해당 기업은 납부일 연기 신청을 통해 3개월 동안 사회보험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도 가능

번호	항목	내용
3	국민 건강	• 코로나19 방역시스템 강화 관련 해당 의료장비 구매 및 구급차 증설 지원
4	재정 시스템	• 폴란드 중앙은행(NBP) 금리 1.5%에서 1.0%로 인하 • 금융감독위원회는 자본 및 유동성 조건에(LCR) 미달해도 은행 영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보험업 분야에서는 Solvency II(EU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사 건전성 기준을 위한 조건) 추산 방식을 유연하게 변경
5	공공 투자	• 공공투자 프로그램에 약 200즈워티(약 6조 원)를 투자해 학교 및 병원시설 개선, 디지털화, 인프라 개발,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원

출처: 폴란드 정부 Tarcza antykryzysowa.²²⁾

IV. 결론

지금까지 선제적이고 신속한 방역체계 수립으로 동유럽 내 전체 피해 규모를 줄인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폴란드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알아보았다. 이들 국가는 동유럽국가들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제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 결과 서유럽 대비 적은 피해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유럽국가들의 공통적인 코로나19 대응방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열악한 의료체계에 대한 현실 자각이 선제 대응으로 이어짐
2. 신속한 국경 봉쇄
3. 사회주의 체제 아래 의료체계의 영향으로 서유럽 대비 더 많은 병상 확보
4. 바이러스 확산 초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5. 사회주의 문화 영향으로 인해 국민들의 국가 통제에 적극적인 협조

동유럽 국가들은 국가들은 코로나19가 유럽에 상륙한 초기부터 스스로가 서유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의료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우려했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이 된 이후로 자국의 의료진들이 서유럽으로 떠난 상태기 때문에 평소에도 국가에서 주요 발병을 억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서유럽국가는 자신들의 앞선 기술력과 선진 의료시스템을

22) 폴란드 정부 위기관리 대응책 홈페이지. 출처: <https://www.gov.pl/web/tarczaantykryzysowa> (검색일: 2020. 07. 01.).

믿고 코로나19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믿었다.

또 동유럽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국경을 차단하고 국민들에 대해 방역 지침을 내렸다. 사회주의 체제의 문화적 경험이 있는 시민들은 정부 통제에 잘 따라준 것도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요인이다. 또 ‘국가가 국민의 의료를 책임진다’라는 사회주의 시절 정부방침에 따라 병원시설을 확보하였고 이로 인해 서유럽 대비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확진자들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개인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고 사생활 침해를 극도로 반대하는 서유럽 국민과는 달리 동유럽 국민들은 정부의 명령에 기꺼이 따랐다. 자신들 국가의 의료체계를 우려하고 정부의 의료제도를 신뢰하지 않는 것도 정부의 방침을 따른 하나의 요인이라고 분석된다.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방침을 내세웠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 것도 있지만, 국민 스스로 국가의 의료체계를 믿기보다 개인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필수적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나가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동유럽국가들은 서유럽 대비 코로나19 피해 규모를 축소할 수 있었다.



- 이옥연. 2011. 연방주의와 이민 문제: 유럽연합에 주는 시사점 일고 243.
- Iwona Borkowska. 2018. Ocena kondycji publicznej opieki zdrowotnej w Polsce, 39-45.
- 불가리아 코로나19 상황 본부 자료. 출처: <https://www.mfa.bg/bg/situationcenter/listing> (검색일: 2020. 07. 01.).
- 불가리아 통계청 자료. 출처: <https://www.nsi.bg/bg/content/3928/%D0%BD%D0%B0%D1%86%D0%B8%D0%BE%D0%BD%D0%B0%D0%BB%D0%BD%D0%BE-%D0%BD%D0%B8%D0%B2%D0%BE> (검색일: 2020. 07. 01.).
-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출처: <https://www.ecdc.europa.eu/en/cases-2019-ncov-eueea> (검색일: 2020. 07. 01.).
- 폴란드 코로나 특별법 가이드(Specustawa Covid-19, Przewodnik). 출처: <https://investinpomerania.pl/aktualnosci/law-on-covid19-in-poland-handbook-by-baker-mckenzie-experts-2/> (검색일: 2020. 07. 01.).
- Bankier 폴란드 신문. 출처: <https://www.bankier.pl/wiadomosc/Nowa-wersja-aplikacji-do-sledzenia-koronawirusa-7902268.html> (검색일: 2020. 07. 01.).
- Dennikn 신문. 출처: <https://dennikn.sk/minuta/1800045/> (검색일: 2020. 07. 01.).
- Our World in Data. 출처: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data> (검색일: 2020. 07. 01.).
- TVNOVINY 슬로바키아 신문. 출처: https://www.tvnoviny.sk/koronavirus/1993653_od-piatku-sa-zacina-testovanie-romov-v-osadach (검색일: 2020. 07. 01.).
- UN Statistics Division. 출처: <https://unstats.un.org/unsd/methodology/m49/> (검색일: 2020. 07. 01.).

● 투고일: 2020.07.16. ● 심사일: 2020.07.17. ● 게재확정일: 2020.07.28.

| Abstract |

Response t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and Quarantine System of Eastern European Countries : Focusing on the Cases of Slovakia, Bulgaria, and Poland

Lee Hayan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sponse t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and quarantine systems in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try to find out why Eastern Europe was less suffered compared to Western Europe. As Europe became the hub for global spread,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and deaths began to increase rapidly in Western Europe. Thus, the majority believed Eastern Europe would be vulnerable to the virus for several reasons: less advanced medical systems; and the healthcare brain drain ever since joining the European Union (EU). However,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have succeeded in spread control with less damage. This study analyzed cases in Slovakia, Bulgaria, and Poland, which established a preemptive and rapid quarantine system. The countries took preemptive actions because of the inferior medical environment and the insufficient number of medical staff, which could lead to the collapse of the medical system. The government's rapid and strict border controls, the majority of people wearing masks, and the cooperation with state control due to the influence of socialist culture are analyzed to be factors that responded well to the pandemic.

<Key words> Eastern European Countries Coronavirus, Eastern European Countries Pandemics, Socialist Pandemics, Eastern European Diseases